朝鮮日報
第二夕刊
十九日(月)
本紙朝夕刊二十面

華盛頓條約制限超過
米、超弩級主力艦建造
繼續建艦으로造船所도擴充

【紐育十八日發同盟】超弩級四萬五千噸主力艦아이오와號 建造를 命令바든 브룩클린 海軍造船所에서는 드디어 準備가다되어 五月下旬 이超工式을하기로되엿다 이는 華盛頓條約의 軍艦噸數制限을 超過한 巨艦超工의 開始로 米國海軍歷史에 一新時代를 劃하는 記念할만한 超工式이다 그리고 브룩클린造船所에서 建造中인主力艦노스·카로리나號(三五、〇〇〇噸)進水式도 아이오와號超工式과 가튼날 하기로되엿는데 노스·카로라이나號는 十九年間의 長期間에亘한建艦休日後最初에進水하는 條約戰鬪艦으로 이亦是意味키픈軍艦이다 來年九月艤裝을 마치고 明後年就役할 豫定으로 그總工費는 六千五百萬弗로 概算되고잇다 그리고 아이오와號 總工費는 八千五百萬弗豫定으로 一九四三年末에 艤裝을 完了할 豫定이다 그리고 브룩클린造船所에서는 노스·카로라이나號가進水되면同船臺에서 四萬五千噸級主力艦을 一隻다시建造할 命令을바들것을 豫期하고 船臺擴張을 準備中이라고傳한다

英佛商船無制限攻擊
아號事件으로獨官邊言明

【紐育十八日發同盟】獨逸政府는 諾威領海內에서 英人捕虜를 奪還한事件에對하여 極度로 憤慨하고잇는模樣이다 AP伯林電에依하면 獨逸官邊은 十八日 今回의아르트마르크號事件에비추어 獨逸潛水艦은 英佛商船에 對하여 無制限攻擊을 開始할듯 다음과가치 言明하엿다고한다

獨逸政府는 아르트마르크號襲擊事件에依하여 보여준것과가튼 英國의 海賊的行爲와 過日의처칠海相의 言明에依하여 商船을 武裝시킨다는 言明에依하여 商船은 벌써 軍艦으로 看做하지아니치못하게되엇다는 理由로 獨逸潛水艦은 今後 英佛商船은 勿論 英佛港口에 導入되고잇는中立國의 船舶에對하여도 發見하는대로 無警告攻擊을 하게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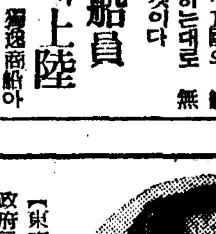
奪還捕虜船員 蘇格蘭에上陸

【倫敦十八日發同盟】獨逸商船아르트마르크號로부터 英國ノ俘虜船員을 奪還한 驅逐艦코삭크號는 十七日夜스코틀랜드東海岸리스에到着하엿다 救助된 俘虜船員들은 即時病院으로 運搬되엇는데 이中百五十名은 十八日釋放되엇다

西、東洋商議設置

【마드리드十八日發同盟】戰後의 產業回復에 努力하고잇는 西班牙에서는 防日經濟使節團派遣等 最近 東洋에對한 關心이 기퍼가고잇는데 이제 西班牙實業家間에 對近東及極東通商關係促進의 目的으로 마드리드市에 西班牙東洋商業會議所가 設立되어 十八日發會式이 盛大히 擧行되엇다 西班牙東洋商業會議所는 日本을 始하여 埃及、土耳其、希臘、유고·슬라비아、勃牙利、羅馬尼亞、泰國、比律賓、支那等諸國과의 通商關係樹立에 努力하게될터인데 먼저 西班牙...

米內首相渡支?
新政權成立機會로



【東京電話同盟】支那新中央政府도 近近誕生하여 事變處理의 一段階를지어 紀元二千六百年은 東亞新生期의 第一年으로서 世界史에 빗나게되엇스므로 이機會로 聖戰目的을徹底히하고 新政府의 成立發展을 積極的으로 支援하는 帝國政府 不退轉의 決意를 中外에 宣明하는 見地에서 新政府成立을機로 米內首相自身이 渡支하여 新政府誕生에 祝意를表하는同時에新政府의首班과交驩하여 東亞永遠의 平和確保에 對한 重要協議를 遂하여 兩國將來의 基礎를 確立하라는意見이 有力히擡頭해오고 軍部方面에서도 首相의 前線視察을 要望하여 그推移는 重視된다 支那事變勃發以來 政府首班의 前線視察問題는 屢次計畫되어 平沼首相은 昨年八月下旬渡支準備를한일이잇고 또阿部首相도十二月下旬이를 決行하려고 하엿스나 모두 內閣更迭에 依하여 實現되지 못하엿다 今番米內首相의 渡支는 單純히 前線의 勞動慰問에 限定되지 안코 新政府成立에 對한 祝意交驩이라는 새로운重要使命이잇서서 그實現可能性이 濃化되어온것은 注目된다 (寫眞은 米內首相)

歐洲戰爭五個月

伊、結局獨에加擔?
地中海의 確保가 伊國生命線

(四) 在안트웝 金載元

伊太利外交의 「모토」는 「地中海안에서의 捕虜狀態에서 버서나자」라는것이다。이나라는半島國으로서 數千키로의 海岸線을가지고 잇는것을 이저서는안된다。따라서 이나라의 生命線은地中海에잇다。「에디오피아」獲得、西班牙에의 出兵또는 「알바니아」의 進出이 모다 地中海의 地位를强固케 하자는것이다。「코르시칸」、「튜니스」「지불티」의 要求도 이點으로 보아야할것이엇는가。그러면지금의 形勢는 어떠한가。目前의 「코르시칸」는佛國의 手中에잇고 튜니스(對岸인阿弗利加)亦是佛國한테매엇기고 잇지안혼가。地中海入口에는「지부랄타」乃至는「스에즈」運河가 英國의 所有가 아닌가。또한편「다다넬」海峽은 英國과 軍事同盟을 締結한土耳其의손에잇다。따라서 伊太利는 名實上地中海中에 갓긴格이되엇다。一次伊太利가 英佛에 對抗하여參戰만 하게되면 伊太利는地中海方面에서는 獨逸의 援助를바들수업슬것이며 現在의伊太利海軍으로는 英佛의 海軍에對抗할수업다。따라서 伊太利가勝算업는 싸움을 始作하지안는것을諒解하여야한다。그러타고 地理上으로 伊太利는 地中海外에그生命線을 求할곳이업다。現在伊太利는 獨伊同盟을 締結한 二重인 外交政策을 取하고 蘇聯의 「발칸」進出을 警戒하고잇다。「발칸」地方이 伊太利의背後를 形成함으로 그重要性을無視키 不能하나 그重要性은地中海보다는 크지안타。蘇聯의 「발칸」進出은 獨逸도깃버하지는안는바니 結局蘇聯을 牽制키 이방면의 獨伊關係는 親和시키고지 하는것이 現在獨逸外交의注心點이라고 筆者는 觀測하고 잇다。

伊太利를 英佛陣營에 끌어드리는 것은 獨逸에 致命的打擊이다。따라서 英佛側이 某種의約束을하여 獨伊를離反시키고저 할는지 몰은다。事實 이工作이 만히된다。그러나 伊太利에 그要求하는地方을준다는것은 一方英本國의 印度에 가는 通路를危케하는結果를내다。伊太利가 地中海에覇權을 잡는다는것은 到底히容認하지못할일이다。

伊太利의 讓地는 이와가튼 狀態에잇스므로 結局漁夫之利를取하자는 心算에 불과한이다。漁夫之利라는 말도만은 不充分하다。以上의 事實을 가르켜하는말이다。英佛이 絕對勝利를 엇는다는것은 伊太利의 要求에 依하여 英佛의 讓步를 엇지하드래도 英佛은伊太利의要求에 某種程度의讓步를 하여야되니까、이러케하여가면서까지 英佛이伊國을 意用하려는것은 推測에不難하다。果然歐洲의政界는 各國의利害關係가亂麻와가티 얽혀서 伊太利가 獨逸에加擔할可能性이 오히려만타。獨逸의助力이업고서는 結局伊太利의 要求는 滿足될可能性이 업는 까닭이다。아직도 歐洲에서는 停戰講和의 希望을 버리지안는다。假令講和가된다면 勿論勝敗가 업시되는 講和인만큼 即言하면 蘇聯이 開催되어 歐洲政界의 數多한懸案을 平和裡에 解決하자는것을 前提로한다。그러나이러한種類의 平和會議는 交戰國間의 懸案을解決하는外 伊太利의地中海의要求도 考慮하지안으면안된다。이點을明言하엿다。獨逸의 植民地의一部를 還附하고、그代身 다른點에서 獨逸의讓步를 어더서 停戰이잇다하드래도、英佛은伊太利의要求에 某種程度지의讓步를 하여야되니까。

入하여、平和裡에는 收拾할道理가업게되엇다。

이것은又다의小論은事를作定이엇는데以下暫間더써보기로하자。왜 이歐洲政界가 이러케도複雜하게되엇는가。그原因은 勿論 「베르사이유」講和條約에잇다。四年間이나 거이全世界를 敵對로하여 結局戰爭에는 敗하지안엇스면서、敗後의內政問題로 敗한獨逸民族은 獸民族이엇고、그民族의 實로보드래도 今後 歐洲의 覇者가될 可能性이만타 各文化部門에自然科學으로보나 精神文化部門으로보나 獨逸民族의優秀한것은 낫타난다 卽이獨逸民族을홀리 英佛의 世界覇權을 永久化시키고저 하는것이 前番戰爭後의 講和條約이엇다 「世界에는 二千萬만흔 獨逸人이너무만타」고 하는것은 佛國의 「클레망소」의 有名한 警句이다 換言하면 八千萬中 二千萬을 업새버리려는것이 「베르사이유」條約의 眞意이엇다고 볼수잇다 多寡인지 不幸인지伊國人口는 減少되는一方인데 獨逸人은 출기는커녕 작고增產되어간다 또그들은 歐洲第一의勤勉한民族으로 大戰後二十年 다시再起하여와서 「나의」 金을가지고 우리는勤勉을 가지고잇다」라는것이 近來獨逸의經濟標語이다 事實獨逸官吏가든것은 全部 每日十時間勞動을한다 이러勤勉한 國民을 長期間에걸처 壓迫할수는업다。

獨逸은 一九一九講和條約後數次나 이條約의 根本的修正을要求하엿스나 아모効果가업섯다 그새이 內政上만흔波瀾을 겨고結局 「히틀러」의 政權이생겻다「히틀러」의國粹社會主義는 立場에달러서 어떠케는 批評할수잇슬것이다 何如든獨逸의 正當한要求를듯지안코 結局이런極右派「히틀러」가 政權을 잡게만들어노흔地盤은 英佛側卽前大戰때의戰勝國이 맨드러노하다고할수잇다 反對로英國의 要求를 어느程度까지라도 英佛側에서 自發的으로容認하엿든들 첫째「히틀러」政權이 생기지안엇을것이다。

「히틀러」政權은 처음은英佛에呼訴하여 講和條約의 根本的修正을請하여보앗다 漸次 過去의 誤謬를 認識하기始作한英佛도結局은 香한當者가 된것같이 아하드시 積極的으로 獨逸의要求를容認하엿든 지만 時局의 解決안될 말엇다 瞬時的인 一時的 解決하여야할問題이다。

오면안될 結局에는 더複雜하여진다 그러고結局에는 平和裡에 解決의無望케되다 이런例는 過去帝政時代의 露西亞에서도보앗다 當時爲政者가 根本的으로 會制度를實施하여積極的으로問題의解決을圖謀치아니햇스므로結局革命으로解決하고야 말앗던것이다。英佛이 講和條約 根本的修正에 同意하지 안는다면 「히틀러」는 自力으로 問題를 解決하기 始作하엿다。軍備再修整、「라인」左岸地方의 軍備、「墺地利」合倂、「주데텐」地方回收、「체코」合倂、그리고 이번戰爭의 直接原因이된 「단치히」市와 波蘭回廊問題가 모다 自力으로解決지게되엇다 이번戰爭의 勝敗가 어떠케되든 獨逸民族八千萬은 地上에서 업시할수업는이상、獨逸民族이 生活上 安全을 엇기前에는 歐洲에는 平和가업슬것이다。이것이大戰後二十年間 一日도 歐洲에平和가 업섯던 緣故가 아닌가。過去의大戰은 政治上 思想上 큰變動을 일으키게하엿다 이번도 不幸이나마 이대로 戰爭이繼續되면 다시한번 政治上 及思想上 大變動이 잇슬것이다。根本을 이러케 世界가 安定되지 안는다는것은 어떠한根本的 大手術을要求하는 證據이다。(終)

揚子江開放時期
作戰上形便으로決定
畑陸相答辯

【東京電話同盟】十九日午前衆議院豫算第四分科會에서 小山亮氏(時局)는 揚子江開放은 軍事上必要도보아 開放하여도 支障이 업다고 하엿는가하는 質問에對하여 畑陸相은 다음가치 答辯하엿다 『揚子江開放에 對한 十二月十八日 聲明은 全然 軍의 作戰上見地에 依한것이다 따라서 開放에 三個月期間을 부친것이아니고 開放은 現在의 實情을 생각하여 治安狀況으로보아 軍이 自主的으로 하여야할것이 업다 軍은作戰事情이 容許하면 開放을 强行하기로 決定한것이므로 時期如何는 作戰上見地에서 하여야할것이다』

006497

쌀을搬出하려면
滿洲粟配給必要
山田遞信局長平南北視察談

南總督의特命을밧고 平安南北道食糧對策의實情을 視察하고 도라온 山田遞信局長은 十九日 「兩道가 가진쌀을 內地도는他道로 搬出시키려면 그代身먹고살 滿洲粟쌀을 하루바삐 더려올 必要가잇다」고 前提하면서 다음과가튼 視察談을 말하엿다 이번出張의目的은 南總督의 特命에依해서 平安南北兩道의 食糧對策의實情을 視察하는것이엇다 日程은 約一週間인데 지난二月十一日出發하여 온저平南에서는 平壤鎭南浦等을보고 다음平北에 들어가서 新義州、龍川、宣川、定州等의 實況을視察하고 十七日에 歸任하엿다 이번出張에서 어든印象을 兩道는모두 알本府의方針을體하여 知事部長을 비롯해서 郡守警察署長을 爲始하여 各洞里에까지 食糧對策의 實現을 두루하게 節米를하고 잇섯다 그리고道民들도 時局을잘 認識하고 當局의指導에 따러 各各行動하고 그方針아래서 各各行動하고잇는것이다 國民精神總動員聯盟이나 愛國班등이 食糧對策의實行에 잘活動하여効果를 發揮하고잇슴을보엿다 今年의實로 잘農合해보엿다 元來平安南北道는모두 米의生產高가 적다 道內의消費高를超過하여 例年이러케해서 남는分을 內地其他道外에 搬出하고잇는데 그反面에粟쌀等雜穀은 道內生產不足으로 滿洲에서 ...

徵兵檢查와口頭試問에
말더듬는분이大喜

노래나 술때엔 잘안더듬는데 남과말할때에 더듬는이 「新自宅矯正法」의 學理的說明書를 全國의 全快者記錄을 上原博士의 矯正法으로써 新自宅矯正法이 研究되어 十五歲以上 男女에게 一人一冊限無代進呈하니 東京神田スルガ臺「正音研究所」로 年齡을明記하고附託하여申込할것 일부러말하는 이는 알수잇슬것이다

獨諾關係는解決?
獨、諾政府의誠意를諒解

【伯林十八日江尻同盟特派員發】十八日 獨逸各紙는 全面을들어 아르트마르크號事件을 大大的으로 報道하고 外務省은 日曜임에도 不拘하고 外國記者團과의 緊急會見을 招集하는等 緊張味를 보엿는데 獨逸政界의 空氣로 미루어보면 事件自體는 大略 一段落을 짓고 特別한 支障이 發生치안는限 獨逸과 諾威와의關係는 別로 惡化되지안흘것가치 豫想된다 獨逸의 强硬抗議에對한 諾威政府의 公式回答은 十八日午後까지는 아직 獨逸政府에 手交되지 아니햇스나 諾威政府의 聲明에依하여 同國의誠意잇는 態度는 明白이 하엿고 獨逸政府도 이를諒解하고잇스므로 諾威政府의 公式回答에 依하여 事態는 解決될것가치 豫想된다 十八日緊急會見에서의 獨逸外務省當局의 言明을 綜合하여보면 獨逸側主張은
一、獨逸의 抗議는 諾威政府가 敢한 措置에對하여 한것으로 諾威全體를 相對로 한것은아니다
一、이를 放置하면 英國은 이를既定事實로삼고 法規上 中立國에對하여 함부로 行動을 하게될것이므로 이를 默認할수업다
一、英國은 아르트마르크號가英國의 捕虜를 搭載하엿스면서 國際法을無視하고 中立國領海에 逍入한것을 追跡한理由라하나 英國政府의 公式回答... 고잇스나 英國軍艦이 最近獨逸商船을 拿捕(四、九三〇噸)의 船員을拘留시키고 파나마運河通過에 國際法을侵犯한以來 獨逸는 이를實證할 必要가잇다는것이다 獨逸諸國에對하여 이가치嚴重한態度를取하는것은 諸國一國을 相對로한것이아니요 北歐諸國、발칸其他 獨逸에戰時食糧을 供給하는 中立諸國에對하여 中立嚴守를 警告하려는 意圖에나온것이다

諾、中立義務違反
英政府逆襲的抗議

【倫敦十八日發同盟】諸威政府는 아르트마르크號事件에 關하여 十八日 헤르멘르트마르크號 駐英公使를 通하여 英國政府에 抗議하엿는데 英國外務省은 十八日午後六時半 諾威公使에게 要請하여 할리팍스外相은 昨十七日諾威公使를 招致하여 諸威政府의 見解에依하면 英國軍艦이 아르트마르크號를臨檢하엿슬때 英國人俘虜四百名이存在하고잇는것을 確認치 안흐면 在中立義務에 違反한것으로 認定된다 따라서英國政府는 아르트마르크號에對하여 要請를充分한 理由가잇다고 思惟하는바이다

重慶虛僞宣傳粉碎
南支派遣軍蔣軍宣傳部長에게放送

【廣東十八日同盟】南支派遣軍報道部에서는 十八日夜 라디오로 重慶政府宣傳部長에 對하여 다음과가튼 放送을 하엿다 ...

浙東戰線
我軍着着進擊

【浙江省○○十九日同盟】十七日早朝부터前進攻擊을開始한 浙東作戰左翼諸部隊는 我包圍陣을 脫出하려고 必死的抵抗을試하는 敵第百九十二師는 到處에서 壯烈한 殲滅戰을展開하여 殲滅的打擊을주면서 猛進中이며 又○○山의敵陣을 十七日深更突破하고 ○○部隊는 十八日早朝○○(紹興南方五키로)의敵을 掃蕩中이다 此等左翼部隊에呼應하여 十七日行動을 開始한 右翼寧田、水田、曹頭部隊도 十八日朝來西北으로向하여 到處에서 頑敵을 捕捉殲滅中 이다 그리고 十八日朝來 南東飛行隊○○部隊도 此等部隊에 協力하여 敗走中의 敵集團을爆擊하여 大打擊을 주엇다

物價委員改組
近近正式檢討

【東京電話同盟】物價委員會改組案에 對하여는 그後 企畫院에서 具體案을 研究中이던바 이지음 試案으로 數案을作成하엿스므로 政府는 近近 閣議에서 이를 檢討하여 今週中에 드디어 改組에 着手하기로 되엇는데 大略二十日 定例閣議에서附議、各閣僚의 意見을 聽取하여 그結果를 參酌하여 다시企畫院파 最後的調整을 한다음 빠르면 二十三日의 定例閣議에서決定될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改組案의 最後的決定까지에는 아직 相當한 迂余曲折이 잇슬것으로보인다

南總督快癒

去九日以來感冒로 官邸에서 靜養中이든 南總督은 全快되어 十九日부터 元氣하게 登廳하엿다

八面鋒

◇諸威領海에서 英艦逐艦 獨商船을 臨檢拿捕시키고 二百七十五名의 俘虜를 奪還。
◇中立國領海에서 이와가튼行動은 當然 國際法의 違反。
◇諸威의 抗議에 喜劇氏 有何辭明고。
◇이事件에 對하여 米國도 重大視한다고。
◇그러치만 草綠은 同色이라 別큰問題는 안되겟지。
◇南進政策을 新相說明、要는 經濟的進出에 不過하다고。
◇忍耐에 걸린 英、和、米 諸國도 安心할事。
◇一胎四女가 생겻다、稀貴한 實事件、母女健在하다니 喜尙할일。

廣告

漢醫藥的世界的大進化! 人人歡迎!!
二千餘年歷史를가진漢醫藥이世界的進出!堂堂制覇!!
中國古宮秘藥借力虎骨丸海外로飛躍進出!
果然大好評 日本朝鮮各地에서注文殺到!
得効하얏다는感謝狀踏止 是乃仁術
天下無敵 借力虎骨丸 効力偉大
東西古今에그類例가업는燦然한强力借力藥完成
秦始皇도愛用튼中國秘藥領藥 各國拳鬪界의猛將愛用之藥!
氣力體力精力이旺盛한者가生存競爭에優勝한다
受社會絕大之信用
骨格體質改造借力强壯藥
優勝劣敗는此達爾文進化論中之言也
現在기운보다 갑절이나 力이강하여지고 ...
名聲震東亞
奏効神妙·服用容易
一擧兩得 借力은 勿論이어니와補藥만흠 目的하드라도 此에比할바가업다!此所謂一擧兩得이로다
自宅服藥 山이나절에가지안코男女老少를勿論하고 自宅에잇스면서도 간편하게服藥하는차력약
自讚自讚 자기가그리그리할자기가충찬하는것갓지마는복약가는의심이 업시 조금도의심치말고쓰시옵
藥價 大借百圓 中借五十圓 小借三十圓
一家之計在於和 一生之計在於勤 健康之計在於借力
有意必成이오니躊躇말고着手하옵

有毒短命
不必注射手術之煩雜危險毫無副作用
最安全神速的梅毒根治藥!
純漢方秘劑 梅毒退治丸 宜速服
文明이發達되어갈수록漸次終息되어야할惡疾이 더욱猛威를떨치고잇는 梅毒이잇다 ...
(藥價) 猛毒性用二十圓 惡三期用十五圓 重二期用十圓

三百年來秘藏家傳藥公開! 現代的救世主出現! 名藥無國境
肺病完治 肺病不足 하는명약 症肋膜炎 漢方秘劑 必治藥
長生治肺丸
三期劑 三十圓 二期劑 二十圓 初期劑 十圓
本房에서 판매하는 폐병약은 자화자찬(自畫自讚)이아니라 ...
滿洲國新京興安大路廣場

健康相談部常設
本舖 亞細亞大藥房
代表長電話② 一四四一番 振替口座新京九九〇番
理由 代金引換注文도歡迎하오나 先金注文이注文主로써有利흠
선금주문하시는때는 만주국우표로세금과송료를 본방에서부담하여드리게되오니 이점을(利點)잘생각하시옵소서

十月一日에 國勢調査

職業關係、教育程度等卅五項目의廣範圍로

道府邑面、調査陣容整備中

인구동태(人口動態)를 한사람 한사람에 대하여 조사하는 국세조사(國勢調査)는 오는시월일일을 기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는데 전시하에 맛는조사이만큼 그의의는 한층크며 총독부 국세조사과(國勢調査課)에서는 지금 만전의준비를 가추기에 분망중이다 이번조사의 추정인구(推定人口)는 사백팔십구만팔천이백 사십이세대에 이천사백구십미칠백명인데 오십세대를한 조사구(調査區)로 나누므로 전조선이 구만삼천구백육십오구로되고 조사원(調査員)도 예비원(豫備員)을 너허 십일만이천칠백 오십명의 다수에 달하며 비용은 전부의 집계가 끗나는데 오개년을요하므로 총액삼백이십삼만원의 거액에달하여 첫해만이백사십팔만원이드는 거창한일이다 이번 추정인구를 소화오년제일회의집계결과인 삼백구십팔만오천구백오십삼세대에 이천일백오만팔천삼백 오명에비하면 세대는 칠십여만이천여세대 증일할것이며 인구는 약사백마육이될 의 증가로서 『자라가는조선』을 말하고잇다

조사항목도 제일회는 인구수 기타 아홉까지뿐이엇스나 이번에는 인구수는물론직업관계 교육정도 기타서른다섯항목에걸처 상세히 조사하여 장기건설의병참기지로서의 조선이가지고잇는 실력을 엿보려는것이다 국세조사를정식으로한것은 대정십사년의간이조사이나 본조사는 소화오년이 처음이고 이번이 둘째번이다 그중간에 소화십년에 임시조사 작년칠월에 『물건의국세조사』를 하엿스므로 전후를통하면 이번이 다섯번째가되는셈이다 총독부에서는 오는사월 동경에서열리는 내외지를통한 국세조사연락회의후에 우선각도와 연락회의를하여 모든준비를 가출터인데 각도에는 임시국세조사부를두고 부장이하부원일곱명을두어 각부,읍,면별준비를 독려하기로된다

鑛業熱이식엇는가?

달마다激增하던出願이슬그먼이줄어들어

일월중에 총독부광산과에 출원한 광업권건수는 일천이백오십삼건으로 작년일월보다는 일천이백오십삼건이 적어젓다 사변후 지하자원개발시대를 마지하여 달마다 격증하고잇던 광업출원건수가 주러든것은 한동안왕성하던 출원열이 식어진것을말하는 주목을 끄으는현상이다 그리고 이미출원한건수중 아직 처리되지못한것만도 오만오천건의 다수에 달하고잇다

玉仁町에서 또痘患發生

『마마』의 폭위도 봄버레녹는 눈과함께 사라젓는가고 안심하기쉬운 작금 부내에 또신환자가 나왓다 부내옥인정(玉仁町)일번지일호 식료품행상 이지성(李址成)(二七)은 지난삼일부터 병으로누어잇다가 십삼일오후한시십분 모병원에서 진찰을 바든결과천연두로 진단되어 곳순화원(順化)병원으로 격리한후 부근을 소독하고 교통차단을 하엿다

登校途中에 失踪된少女

십구일 부내각서에는 만주국봉천성(奉天省)한곳으로부터 대련시청견정(大連市淸見町)오십칠번지에거주하는 반전작랑(飯田作郞)씨가 나타나서 다음과가튼 괴상한내용의 수사원을 제출하엿다 즉 반전씨의 딸정자(貞子)(一六)는 대련우의(羽衣)고등여학교이년생인데 지난오일 제복을입고 책보를든채 등교도중에 행방불명이되엿다는것이다

絞首自殺屍

旅館雇傭人이 旅館金品을盜走

십구일아침 부내삼청정(三淸町)북악산중턱에서 나이 삼십세가량되는 청년한명이 나무가지에 목을 매고죽은것을 발견하고 종로경찰서에 신고하엿스므로 계원들을보내어 검시케하엿는데 신원은 아직 알수업스며 죽은지 한주일은 경과한것으로 단정된다

부내종로(鐘路)여관고용인 김중천(金重川)(?)은 시흥읍(始興)에서 나서 이 여관의 돈과물건을 가지고 달아낫다

殺兒한寡婦에 執行猶豫判決

五男妹나죽길으라裁判長訓戒

간난애는 여자의 두볼도 오남매(五男妹)를 길러오라고 시작하야 상의 하솟을 이룰도 모르게한 사건의 언도공판은 십구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열리어 모리(森利)재판장으로부터 피고에게 징역일년집행유예사년의 언도가잇섯다 그 피고는 피해자의 어머니 이귀남(李貴南)(가명)으로 자기가 나흔 여섯째 아이를 죽인것인데 재판장은 피고의 딱한사정에 동정하야 이가티 집행유예로 판결하고 그러고 다시 재판장은 피고를 불러 『이가치 딱한 처지를 하니 아무쪼록 남은 자식을 잘 길러라』고 간곡히 훈계하엿다

眼科專門 京城 公眼科 醫學博士 公炳禹

府廳員은親切하라

高橋府尹、三千廳員에大喝

부청직원은 모름지기 상냥한 태도와 친절로 대하여야한다는데 경성부청의 직원들은 부민에게 대하야 너무 불친절하다는 비난소리가 적지안흐므로 고교(高橋)경성부윤은 관민의 대화를 위하야 부청에 보내는 직원들에게 친절하라고 훈시하엿다

세시쯤 부내 황금정(黃金町)삼정목(三丁目)양복점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대하여서는 한층더 친절하게 하도록하라는것을 엄명하엿다

그런데 부청직원들의 불친절한 태도는 이번 처음이 아니라 일반이 다 아는 사실인데 이번 부윤이 엄명한 이상 어떠케 태도가 변할는지 주목된다

假짜訃告로 賻儀金詐欺

被害者依賴로鍾路署調査中

죽지안흔 사람을 죽엇다고부고를보내어 부의금을 속여먹는 악착한 사기수단을 쓰는 사람이 잇다하여 경찰을 놀내게하고잇다

부내종로경찰서에서는 십구일 이 사실을 알고 즉시 범인의 수사에 착수하엿다 서울에서 조사의뢰를 받은 부고를 보면 그 내용은 경성부 석정(石井)라는 사람이 죽엇다고 되어잇는데 실상은 죽지안흔 사람으로 고인은 그가티 ... 부의금을 모라서 여러 사람에게서 만여원에 달하는 부의금을 속여 가진것이라한다 동서에서는 즉시범인수사에 착수하고 그러한 사람이 잇스면 곳 신고하여 달라고 하엿다

苔灘에紅疫流行

【苔灘】 황해도 태탄지방에는 요지음 홍역이 유행하야 어린이들의 희생이 만타고한다

연락船에 旅客中母子發病

【慶南支社發】 지난 십팔일 부산에 입항한 연락선 흥안환(興安丸)을 탄 여객가운데 천연두 환자가 잇는것을 발견하고 대소동을 이르켯다 그는 경북영천군(永川郡)출신 박씨(朴)의 처 최갑순(崔甲順)(二一)과 그 아들 박한수(朴)(三)의 두모자인데 수상서 항만의과 중개공의가 진찰한결과 천연두로 판명되어 즉시 부립병원 격리병사에 수용하고 동시에 연락선관내의 열차등을 대소독을하엿다 적기 환자는 지난사일밤에 영천(永川)경찰서에서 종두를 바닷고영천을떠나 제만(在萬)집에서 하룻밤을사고 십칠일 도항하려고 부산에오것이다

火災原因 不注意가九〇%

【咸南支社發】 함남도 ... 화재의 제일원인이 굴뚝(煙突)의 부주의로 인한것이다! 함흥서에서 조사한바를 보면 작년중에 일어난 화재는 구십할이 부주의로 인한것이라 한다

물탄술斷乎取締

甚至於藥品까지석거保健上重大問題라고

本町署에서不良酒一齊檢索

최근 부내에는 술이귀하여진 판게로 술장사들이 술에다가 물을섯는다든가 나뿐술과 조흔술을 섯거 파는가하면 묵은술에 다가 다른물을한 약품까지 석거서 팔기가일수임으로 이결과 국민보건상 중대문제를 이르키게되어 본정서 위생게에서는 십구일부터 술전하여 관내의각주류판매점및 음식점의 일제검색을 실시하여 불량주류를 일소하기로되엿다

防空委員會

今日京畿道에서召集

경기도에서는 십구일오전열시부터 제이회의실에서 경기도방공(防空)본부간사 서기등 관게도방공계회에관하여협의를하엿다 판(?)을마치고 소화십오년도 경기도방공계획에관한협의를하엿다

쌀四千石

咸南에서咸北에

【咸南支社發】 쌀이 적은 함북으로 백미사천석을 보내기로한 함남도에서는 인접한함북의 실정에 비추어서 백미사천석을 중부의알선으로 보내주기로 되어서 불일 반출하기로되엿다한다

네쌍둥이에게보내는 同慶의祝儀金

樂園町張西雲氏金一封本社寄託

아세아의 기적! 경북영일군(迎日郡)에서 네쌍둥이를 순산하여 모녀가 모두 건강하다는 지면보지의 보도기사는 볼도 깃을 이기 시작한 팔도강산에명랑한 이야기꺼리를제공하여 가는곳마다 희한한일이라, 다섯모녀를 북되어지이다 하는 축복의 말들려오는중 십구일, 시내 낙원정(樂園町)일백팔번지의일오에 거주하는 장서운(張西雲)씨는 본사를 차저와 그런 희한한 일이 어데잇습니까 길이라도 멀지안흐면 차저가보고 싶것이 지만...약소한대로 네쌍둥이 아기네대에 전해주십시요하고 금일봉을내 노앗다 본사에서는 곳본보경북지사를 통하여 영일군오천면 덕동 (德洞) 이규원(李揆元)씨댁으로 전달하도록 수속을 밟엇다

方本社長 金一封

방(方)본사사장도 네쌍둥이의 장래를 축복하는 뜻으로 십구일금일봉을 보냇다

積雪三尺의三防으로 스키部隊의進軍

◇…本社特派員金光涉記・崔禧淵撮影

◇三防 스키場주쓰 ―積雪……三尺餘 ―氣溫……零下二度 ―눈이 거름로 다소녹아서미 끄러기는하나 스키―의조건은 조타

경성역과 시내의 각구경을 거처 다 이러한 스키장 뉴―쓰가소개된 삼방협과 경성으로부터온 열차 전이된 객차네대의 스키―열차에는 삼백사십여명의 스―키부대로 대만원의 성황이다 모두 두바지에 배낭을 둘러메지고 각사람어느 청룡도(靑龍刀)가튼스키를 들고 스키―장으로 ―그것도 길이 보이는 것을 저마다 걸머지나 원래 출정부대의 어면 특파대로도 볼만한 긴장하고 씩씩한 망경이다 그중에는 남장의 여인부대도 석기어 와락부라하는 사내들의 가원이업시 리속에서 흠성된제마바내는듯 우

(삼방에서는 소요되리 노가필리 나오는것도 흥겨웁것이다)

◇ ◇

복계역(福溪驛)에서 준비되엇든객자세대를 더달어서 일행대에 나누어 다리를 벗고 스키―를 꾸며한참이 들엇다가 깨이니 기차는벌써 삼방협에도 러와잇것이다 시간은 일곱시가량 신념엇스나 잠우좋은 눈덥산으로 몰려와서 이곳은 아직 해가 올라오지 아님는데 날씨는 구름한점업시 개이엇고 기온도 생각한것보다는 그리치지안흔 것가타 일행을가야 겨울이마하게는 송건객이업(?)것가튼 적은도 훙겨웁것이다

역에는 스키―부대들로 대혼잡을 놀우엇스나 그것도 잠간이오 곳스키―장이잇는 산으로 올라가는데 삼십도가량 경사진산을 한이백미돌가량이나 올라가나산 은산이지만 완만하게 이경사진 넘어간뒤에 이 전개되는데 이곳에서 전너다 보이는 봉우산이 스키―장으로 모두 이곳에서스키―를달고 그곳으로 올라간다

(사진 상은 스키―장전경 하는 스키―장에 올다가는 스키―부대)

聖地參拜團 續-續-登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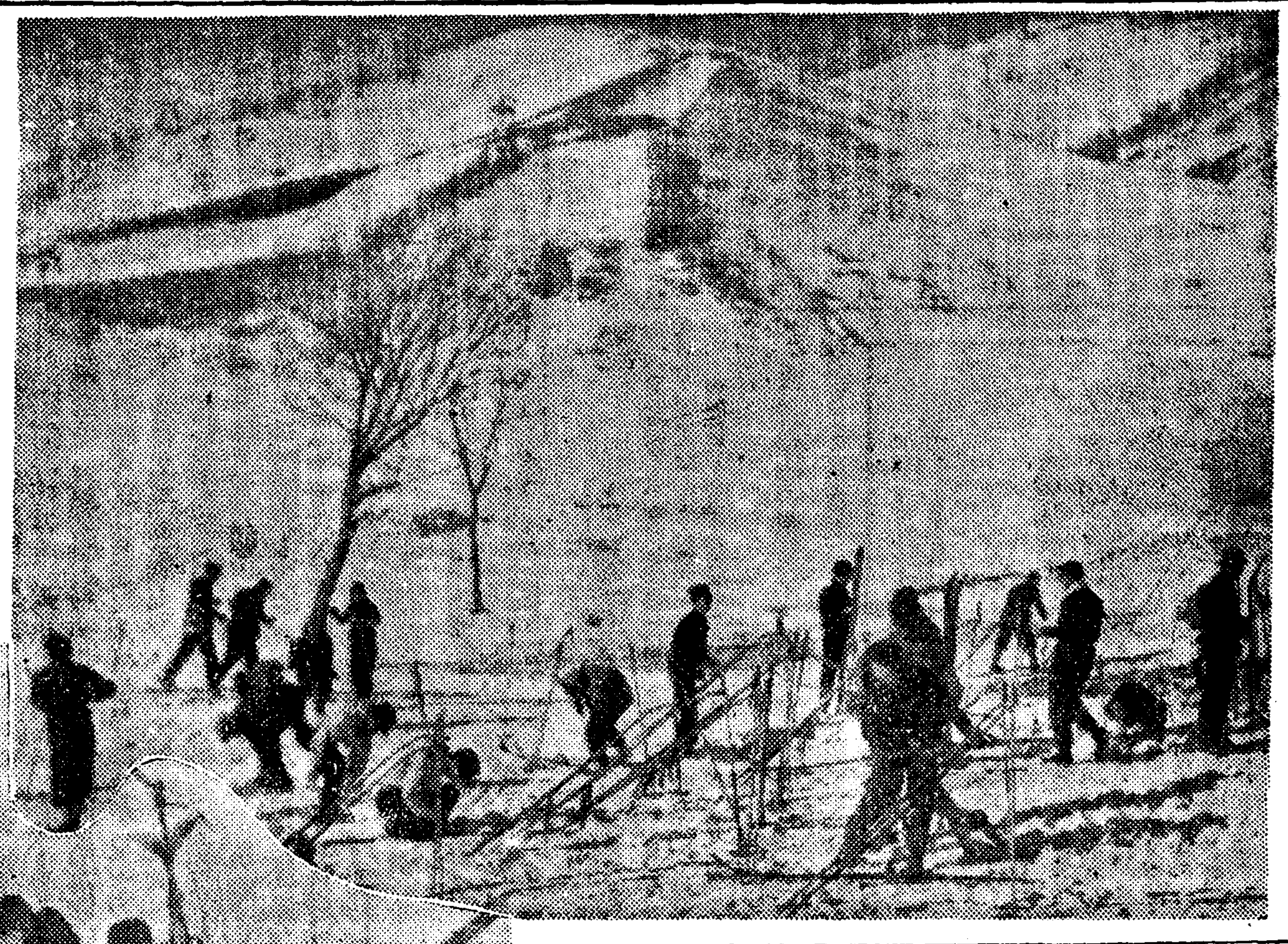
기원이천륙백년을 마지하여서 지참배단체가 뒤를이어 작고떠나고잇다 철도국에서 발표한바를보면 이미출발한것이 여덟단체에 삼백열두명이며 오는팔일까지 출발한것이 아홉단체에 삼백열한명이다 화생단체는 철도여행안내소에서 취급하는데 그밧게 보통단체는 각역에서 취급하기로되엇는데 모두한달전에시청하여주기를 바란다

시부터 봉천 야마도호텔에서조선측 봉사구락부 경성평양대표십오명 만주측에서는 합빈대련봉천의 육십여회우가모혀서 대회협의에드러가

一、마서회의호칭(呼稱)에관한건
一、동권등에관한건
一、차기구강독지명과 서마회의 개최지에관한건
一、복지로―타리―구락부위 합동여러가지의제를 협의한다음에 편한건

鮮滿로―타리大會

【奉天十八日發同盟】 봉천로―타리―구락부위 합동여러가지의제 ... 로―타리― 심주년기념회와 서마로―타리― 대회는 십팔일오후한시 로―타리― 심주년기념회를 열고 김(金)경성시장 석(石田)봉천상공회장의 축사로 연회를 폐회햇다



올림피아遺蹟發掘

갈민스수의 올림픽冬期大會를 放棄한 獨逸에서는 戰時에도不拘하고 恒常『忠實한올림픽理想의探究者』라는 熱意를 보이기爲하여 一九三六年以來着手한希臘의 古代올림픽遺蹟發掘의事業을 依然히繼續하여 오는데 昨年十二月中旬에는 體育長官오스텐氏와 올림픽研究所長데므博士가現地視察에赴하엿다

이發掘事業은 過去千四百年 동안 地下에무처잇던 올림픽遺蹟에對하여 從來에잇서서 徹底히 行하여온發掘에 決定的決論을 지우려는것으로 今日까지에잇서서 새로이 發見되는것으로는 올림피아 西側에 競技前選手의 合宿練習에 充當한建物(올림피아村의起源)을비롯하여 競技場의 痕跡에서貴賓席에使用한 大理石의椅子、優勝者의 姓名을 彫刻한 石의記錄과 圓盤(重量이十二斤度)等을 發掘하엿는데 獨逸과 希臘서는 今夏競技場의 完全發掘을 記念하기爲하여 希臘에서兩國選手의交驩陸上競技會를擧行할計劃을세웟다고한다

◇Aクラス 1伊太利3瑞西3獨逸4匈牙利・羅馬尼亞 5佛蘭西 6洪牙利7和蘭 8瑞典9白耳義

◇Bクラス 1丁抹2諾威 3루마니아4에스토니아 5리스아니아 6라드비아7葡萄牙

海外短信

獨逸國際競技 六個月間에十二種目

北歐諸國에서는 獨逸國際競技會의 六個月間에 十二種目 오스텐博士로부터 一九四〇年前半六個月동안의 獨逸國際競技大會의 푸로그람을 밧게되엇는데 이에依하면 大個月동안에 擧行할 獨逸國際競技會의 種目은 籠球、蹴球、하키―、拳鬪、陸上、펜스링、水上、自轉車、送球、射擊、馬術等의十二種目으로 戰時下의獨逸이 스포―츠에對하여 얼마나 熱意를가지고잇다는 것을 察知할수잇다

써―커에伊太利首位

瑞西의有名한 스포―츠新聞스포―트紙에 一九三〇年度의歐洲「써―커順位」를 다음과가치發表하엿는데 Aクラス에는 世界選手權保持者伊太利가首位이고 Bクラス에는丁抹이首位이다。 그리고 이順位는 每年秋季에 發表되는데 國際蹴球聯盟의 書記長리멧트氏의意見에依하는것으로非常한 權威와興味를가지고잇는것이다。

國際蹴球聯盟

不在者受大作 以下 ... 燒失家屋 五百餘

鈴鐸

금월부터 중등학교 입학과목시험은 국어 에만한하고 건강고사와 평소성적을위주로 입학생을뽑는 역사적인 새제도실시를압두고 수만명아동들이 가슴을조리고잇다 ◆전형에 학과를 주장을삼을때나 이번에 건강고사를 중하게여기는 새제도나일정한인원수를 뽑는다는점에서입학난의해결과는 아무상관이업슬것이나 ◆다만한가지다행한 일의입학시험제도의 개선으로 정주의엇지할수잇는 순전한 재도 시판이될수잇는 원님이라 제도의시판은 일개사무직원이 담당할바이니요 이야말로 인격적인 참된교육가를 필요하게될것이다 ◆깨끗한양심에 비최어 놀파땅에대하여 부끄러움것이업는 공명무사한선발을할 시성한 직책을마튼 여러분 교육가들은 이제부터 정신의 재계 목욕을하고 양심의 천칭에올어가 고요히 다닷는가。『잡동』(雜動)을해야 될것을 깨

懸賞尋人

姓名 朴炳子 二十六歲 身長五尺四寸 兩眼稍高 近視眼 黑色 鼻口大 黃色 言語 海洲 黑色 細長한 頭髮 韓服 三十餘歲 ... 右人을 發見하여 通知하는 이에게 金五十圓을 贈呈함

タイピスト生徒募集

無期限 就職斡旋 邦文タイプ 本京城府中央印刷所 タイピスト養成所 取次 龍山局二八七番

朝報案內

中古樂器高價買入

ピアノ、オルガン 其他 樂器 賣買 在庫品多數 京城明治町二丁目三 ... 樂器社

張世貞의 流行歌 내어이왓나요

片面 꼿업는 花瓶 南仁樹 오―케―레코드

急讓 土地

京城府 新田町 所在 約七千坪 附近新村水色唐人里京仁運河豫定地帶文化住宅地帶 有望한地帶 投資의妙味가 有하다

歡呼 時代의進步發展은無限이로다 京城의 人口의 發展과 利用의 地帶는 有限으로

(富士發明見本)

朝鮮作家名作全集

어머니 (第一回配本) 李光洙 金東仁 ... 現行 六法全書 ¥480 最新 書式大全 ¥300

永昌書館

學生募集

舊名 滿洲自動車學校 改稱 滿洲自動車專門學院

每月一日新學期開始 奉天 ... 電話(二)二九四四番

大東商業實修學校生徒募集

第一學年 約五十名 出願期日 三月二十九日迄 試驗期日 三月三十一日 京城府桂洞町三六

儆新學校生徒募集

一、第一學年 約百名 二、出願期日 三月十六日限 三、試驗期間 自三月二十一日至同二十五日 京城府蓮池町一

奉天東光學校生徒募集

補缺生募集

鮮滿醫師試驗問題解答集

全一冊 正價 十三圓五十錢 內容見本進呈 平壤府館後里一七一 箕城醫學編輯部

咸興大興商業學院生徒募集

財團法人咸興商業學院 新學期 三月二十一日 試驗期日

官認京城中等專修學院第八回生徒募集

京城府黃金町六丁目卅三番地 電話本局五三六〇番

官認京城高等簿記學院第五十三回生徒募集

京城府黃金町六丁目卅三番地 電話本局五三六〇番

誠信家政女學校

募集人員 約五十名 出願期限 三月六日 試驗期日 三月八日―三月十一日 京城府堅志町

官認京城工科學院生徒募集

出願期日 四月三日迄 考査期日 四月四日 合格者發表 四月五日 京城府新水町四一七番地 電話 龍山一、一六六番

東亞工科學院生徒募集

土木科、鑛山科、測量科 各六〇名 入學資格 尋常小學校卒業程度以上 詳細問題規則要三錢切手 京城府

指定中東學校生徒募集

本科 第一學年約百名 出願三月二十二日까지 別科 第一學年約八十名 出願四月一日까지 考査四月二日 學則要三錢切手 京城府

朝鮮總督指定 信聖學校生徒募集 (平北宣川)

第三、四學年補缺生若干名 出願 三月二十四日限 考査 三月二十五日ヨリ三日間

公認 東亞自動車學院生徒募集

募集人員 五百名 入學期日 每月一日 奉天商埠地三經路八緯路一四六號 電話 二一二四七九番

私立 城津商業補習學校生徒募集 (咸北城津)

第一學年約百二十名 十二歲以上者로左記各號에該當하는者 一、尋常小學校卒業者及本年三月卒業豫定者 二、小學校卒業者와同等以上의學力을가진것으로認定된者 選拔方法 身體檢査口頭試問及初等學校長의所見成績을綜合判定함 出願期日 三月二十四日부터二十八日까지 試驗期日 三月二十日

日本高周波重工業新株式募集本日締切申候

二月十九日 日本高周波重工業株式會社

新小說의擡頭 (三)

林和

續新文學史

그러고 또 한가지 이小說을 現代小說에서 區別할 特徵은 自己 새思潮와 舊思潮의 對立이 尖銳에까지 노파지지 아니한 點이다.

洪參判과 李判書는 前者가 守舊派요 後者가 開化派이라 하드래도 그差異가時代의 思潮的 意義를 表現할만큼 鮮明하지못하고 오히려 서울兩班과 시골兩班의 時代이란 限度에 머물러있었다.

따라서 이두사람의關係가운데선 直接으로 事件이라는게 이러나지 아니한다. 먼저도말한바와가치 李判書의 開化思想은 단지 洪參判의 아들을 留學보내는데 不過하다 바꾸어 말하면 洪參判의아들이 自己父親의守舊思想을 背叛하는 動因이 되어나타날 다름이다.

이點에서 李判書의 開化思想은間接으로 洪參判의 守舊思想과 關係하여다 할수있다. 그러나 眞一새로운思想과 낡은思想의 對立을 小說의 實際한 「리-마」로하였다면 李判書를 動因으로한 洪參判의아들과 父親의 思想上의 差異는 當然히 小說가운데 父와 子와의 世代的葛藤으로 表現되어야 할것이다.

그러나 「雉岳山」에서는 前述과 如히 洪哲植은 그父親과 對立되는대신 小說的現實을 退場하고 마는데 그것다.

말하여 重要한 그效果에 對立하여 關係하는대신 留學이란 길로 避難하여버리 勿論 留學가는것이 當時의 現實로는 自然스러웠을것이나 洪哲植이 留學가버리여 이小說가운데있던 父에 對立되는 아들의 役割은 조금이라도 남는것이다.

人物이 아니고 그 人物이 있던자리 없는 人物이 떠나버린場所이 小說的現實가운데서 現實的으로 作用할수는 업는것이다.

그러므로 父와子와의 世代的葛藤이라는것은 이小說에서그以上 表現되지 안코 따라서 洪參判과 李判書의 思想的差異라는 重大한 事實도 다시는 小說은 進行된다. 이러한 動因이 小說에서 빠지재, 或은描能이 停止된채로 進行되는小說은 不可不 먼저말한 離婚小說이요 家庭小說인것은 不可避의 일이다.

이小說가운데의 새로운思想은 洪哲植을 留學보내는데 不過하기때문이다.

眞一 새思潮와의 對立이 이러한 곳에 머므러지안코, 더 人物들의 性格과 行動에 作用하엿드라면 「雉岳山」의 續篇은 現代小說에 近似하엿을것이다.

例하면 「꼰드레네프」의 「父와子」와가튼 傑作이나, 그外의 西歐의 近代小說에 각가워질것이다. 그러나 新小說의 時代는그러한 時代는아니엿다.

그러하야 結局는 「雉岳山」을 新小說에 放出한 原因인 李判書의 開化思想은 同時에 이小說을 現代小說에서 區別하는 限界가 되엇든것이다.

이러한 諸點가운데 우리의 特別한 注目을 끄으는點은 이小說이 當時의 社會相을 相當히 反映하고 잇는點이다. 모든 新小說이 새로운 時代를 寫實的으로 反映하는것으로서 舊小說과 區別되는것이요, 새로운思想을 反映하는것으로서 새로운思想의 表現과 特色을 가진것이나, 李人稙의 이小說에서도 그때 社會相을 우리는 相當한 程度로 볼수잇다.

洪參判과 李判書 두兩班의 家庭, 不合理한 主從의關係, 兩班家庭下에서의 婦人의 態度, 이小說에서 우리의 눈에 띠우는것은 洪參判의 家庭에서 볼수잇는 李朝末期兩班家庭의 實로 陰慘한 斷面이다.

이點은 新小說의 그 새로운 노프會現實, 아니할수업다.

그러나 그것도 一朝에 創出된것은 아니고 오로지 前述한 英正以來에 生産된 舊小說의 遺物을 繼承한 産物이라 할수잇다.

그런데 이小說을 이야기하는데 빼놋치 못할點는 洪參判집이 亡하는 「에피소-드」의 하나인 「무당」이야기에 表現된 迷信打破의 思想이다.

作者는 한편의 形式을 빌어이 이야기를 挿入하엿스나 結果로서는 「곳」 어나 「곳」의 滅亡을 暴露하엿다.

이小說을 이야기함에 끄트로 一言할것은 어떠케 되엇인지 「雉岳山」의 上卷과 下卷의 筆者가 다른 點이다.

現在 永昌書館發行의 「雉岳山」을보면 上下合本인데 上卷序頭에는 「菊初李人稙先生作」이라 하엿고, 下卷序頭에는 「아속생 金敎濟」이라 하엿다 菊의 著다. 이것은 分明히上卷으로 中斷되어던것을 金敎濟氏가 續篇한것일것이다. 君名혹단 아니라, 文章도다르것 갓고 事件도上卷에比하여 훨씬 못한點이 分明하다.

어찌해서 中斷이 되엇는지 그것은 現在알수업다.

東洋과世紀의概念

現在意識과現代詩의位置 ❶

金珖燮

우리가 日常生活에서나 또는 文藝에잇서서 「現代」라는말처럼만히 씌워지는 말도 드물것이다.

學術

이러케 日常的으로 慣用되고 또 活用되면서도 「現代」라는말처럼 그 時間的 限界라든지內面的 性格이 또렷하지못한말도 또한 드물것이다.

이것은 東洋的 年代思惟方法이 西洋的 그것과 다른때문이다.

엄격 東洋서는 어느歷史的인 事實을 契機로하여 百年을 한世紀로 年代를 計算한일이 업섯을뿐만아니라 同一한 한世紀가 內容으로한 歷史的事實이서로 다름에도 不拘하고 우리는

洋을 涉獵하고 도키기에따라 東洋이 歐羅巴를 사랑하는바람에 歷史的變遷의 經緯를 살필사이 업시 極히 尖端的이요 進步的인 年代思惟法으로 採用되어 同執스럽고 曖昧한意味로「中世紀」라말을 쓰고 낡어빠진思想흑가진意味로 「十八世紀」라말을 쓰고 科學的이긴 하면서도 進步的인데가 적으면 「十九世紀」란말을쓰고 精神文化나 物質文化가 가장 發達된意味로 「二十世紀」라말을 쓰고 더나아가서는 「現代」 「超現代」 ── 이러케하여 오늘所謂 「新世代」에까지이르게되엇다.

우리의 二十世紀는 어데서무엇으로 始作되엇는지 大部分알지못하고 歐羅巴的意味도 그냥그대로쓰고잇다.

더욱 「現代」라는 말에잇서서 그러한느낌이만타. 六體두가 「現代」를 明確히解說한뒤에 우리가 이말을이처럼 慣用하고잇슬까? 歐羅巴사람이

歐羅

그러나 이 「世紀」觀에잇서서 巴는本來自己네것인만큼明確한槪念을 올가지고 잇스나 우리는그러치못하고잇다.

假令十八世紀라고하면 그네들은佛蘭西의 大革命이나 또는英國의産業革命을 中心으로하고十九世紀라고하면 科學革命이 擡盛하던時代의 槪念을 말하고世紀末이라고하면 一八九〇年으로부터 一九〇〇年까지 約十年동안에 나타난 어떠한 文藝思潮의苦悶期이엇고 二十世紀라고하면一九〇〇年以後를 가르치는年代的槪念이엇스나 大體우리는우리의 十八世紀가 언제고우리의 十八世紀는 무슨時代를 가젓고

기때문이다. 民衆이 計算하엿스되 한君主의生命만큼 바게길지 안허서 歷史의事實에 對하여世紀的槪念이라는것이 形成되지를 못하엿다.

現代

를 解說한以外의 意味에서 우리는 아직 現代를 解說하지못한채 「現代」라말을 쓰고잇다. 이것이 歐羅의 概念的인것이 다. 歐羅巴에잇서서는 現代라면 時間的으로보아 世紀가 바뀌이는 一九〇〇年以後일것이요 적어도 그年代만으로 世紀의性質을잡기에 不足하다 면二十世紀의人類大事件인 世界大戰以後를 가르칠것이다. 이世界大戰이 人類歷史에 어떠한結果를 가져왓고또그精神界에 어떠한影響을 주엇는가를 생각해본다면「現代」란말은 우리가日常쓰드시 그러케 쉽사리理解될말은 아니다.

더욱 우리의歷史的 推移에잇서 「現代」라고하면 이것은 어느時機에서 出發되엇슬까.

생각컨대 西洋이엇스드면 世紀末이란 槪念도엇섯을것이고十九世紀나二十世紀니하는 現代的

그러므로 우리가말하는世紀란 또現代란主로 歐羅巴的內容으로 使用되고잇고 또歐羅巴로보아서는 一八九九年이 一九〇〇年으로 바뀌이는 時間的事實以外에 歐羅

大戰

이라는것이 確實히 새世紀에 該當한새 內容을 갖추엇다. 이大戰에 參加되어 熾烈히 싸운英國이나 佛蘭西나 獨逸을中心으로하여 그周圍에 直接間接으로關係되는 大小國家와 및諸民族에게 戰爭은 무서운精神的動搖를 주엇다. 그래서 戰爭의肯定과否定이 對立되엇고 或은國家主義와 國際主義에의 旗人

밥이노피 날리기도하여 그속에서눈을뜨고 깨여난것이 十九世紀의個人意識에서 社會意識으로의轉換이기도하엿다. 이轉換期에서過去의 思想과 傳統이 破壞되는리고 沈痛한 呻吟소리가낫고그破壞된는 속에서 새建設에對한制作가 誕生되라고 또沈痛한소리가소사나왓다.

當選漢詩

滄東考選

題 盆梅

三等之二

安城郡市場通 李相璨

搖落荒園萬木摧
一枝先發映春臺
白雪黃昏香暗動
疎燈殘月影低徊
灞橋詩客蹇驢過
洛浦佳人解佩來
莫論他日調羹事
且盡花前有限盃

(評曰) 洛浦句有可知其老辣手法第三句灞橋蹇驢不襯於盆梅

漢詩募集

滄東考選

題 春寒

押 寒韻部 (古詩韻書)

期限 三月十五日 (簿謝進呈)

詩壇金屑

詩文으로得龍한 兪滄洪

滄東散人

兪 深好仁은 高靈人이라 金佔畢齋의門人으로 時文이 高古하고 筆力이 遒勁하여 時人이 兪三絶이라 일컷섯다.

그때는 成宗께서 文學을 崇獎하는때이다 好仁이 이로因하여 睿遇가깃퍼서 弘文校理로 玉堂에 番들어 每晩 好仁을 불러 밤은밤에는 成宗께서 好仁을 불러 慶會樓池中의 小舟를 타고 놀으섯다 이것이 唐의 玄宗이 李太白을 待遇한과 가트

다한다.

一日은 好仁이 玉堂에서 宿直할새 밤이기픔으로 아무일이업스리라하여 衣冠을벗고누웟더니 忽然히門바게 시끗는소리가나며 王께서 宦官一人을데리시고 直房에 臨하시지라 好仁이깜작놀라 일어나니 王이命하여 다만 紗帽만쓰고 안즈라하시고 因하여 從容히 談論하시다가 그紬衣가 해여저서 솜이드러나고 또솜비치 누르것을보시고 好仁에게 이르사대 네가淸貧을지내되 像素함이• 이와가트니 그돗이可尙하다하시고 宦官을 命하여 錦衣一襲을 가저오라하사 因하여 下賜하시니 이것이唐文宗이 草紋을賜與한일과가트다

好仁의집이 善山에 잇스므로 老母를歸省키爲하여 辭職하고갈새 王이親히 會를勸하여 餞送하시니 好仁이感泣하여 울엇다 王이가만이 사람을 보내어 그뒤를따라 그行動을 보라하시되 내가저를 잇지 아니하니 저도 또한나를생각하리라하섯다. 追從者가 뒤를 밟아가더니 好仁이 鳥嶺에올라 北을바라보고 한참동안 머뭇머뭇하더니 詩一首를을펴가도데

慶幃碧雲嶺、舂闈止源溪。北望君臣隔、南來母子向。蒼茫迷信疑、沼遞倚層嶺。書札、愁湯有襟溺。

追從者가 돌아와서 그詩를아뢰어 王이從容히 을퍼가로데 好仁이 몸은비록 바게잇스나 마음은 人君을잇지 안는다하시고 稱하여嘆一章을지오섯다

어더내일이야 그립을울모로더냐 잇스라하더면 제굿하여가라마는 보내고그리는정은 나도몰나하노라

(原文대로썻스니 讀者는諒解하시오)

이와가치 君臣間에 際遇가기퍼섯다.

成宗께서 好仁의寒親하는孝誠을 이루어주기爲하여 義城郡守를除授하시고 慶尙監司에게 密諭하시되 好仁은나의벗이라 寒親하기爲하여 外邑에 가잇스니 잘보아주라하엿다 未幾에監司가 下直을써서 罷免한지라 王이怒하여 일어가로사데내가일찌기 付托하엿더니 어찌罷職을시켯느냐 監司가對答하되 國家에서守宰를 設置한것은 그사람의몸을 榮光스럽게하는것이아니오 百姓을길다스리라하는것이옵니다 이제好仁이 다만將風弄月이나하고 官事를廢하엿스니 어찌能免치아니하겟습니까하엿다.

早春隨筆

春◇日◇遲◇遲 ❶

鄭人澤

하루는 終日 校正에 시달리다 문득 時計를 처다보니 세時가 지낫섯다。세時가 지낫을 보니 點心 먹을것 이즌것이 생각나고、배가 고파오고 궁금한 생각이든다。

그러나 봄이 왓건 안왓건 밥상의 생각은 먹지 안흔것이 多幸한편이다。 다만 봄이 와다고들한다。내게도 그런게 생각되다。

點心을 안 먹엇다 생각하니 새삼스럽게 배가 고팟다。

오늘은 또 무엇을 시켜먹나, 하고 電話에다 입을 대려다가 박그 바라보니까 果然 날세가 말하는대로 햇볏이 따뜻해보이는게 봄인상 싶다. 嶺하듯、밖그로 나가고싶엇다。

그래 그날 나는 때는진 點心을 먹으러 거리로 나와버렷다。

눈은 아직 덜 녹아서길은질퍽어렷스나 그럭세러해서 그러지 行人이 만코모

다들 활개를 펴게 봄이와서 봄이 가든한양이다。

봄이 오기는 틀림업시 오는 모양인데 이놈 총치로 종잡을수가 업서 나는 혼자 길거리에 서서 어리둥절하며 봄이란 대체 어디로부터 엇하려 와는가 허둥지둥찻고 잇스려니까 바람 가트것이 빼을 스치고 지나는데 며칠前가치 자지러안다。 을라 이게바로 봄바람이려니하고、그제서야봄이란놈 꼬리만이라도 만저본것갓다 겨우 治足해서깜부짝글 건느려는데

『鄭君、鄭君』

하고 뒤에서 귀에 익지 안흔 소리가 떨른다。 목아보니 만난지 十年이나 넘는 中學同窓 표君이 十年前과 똑가튼 얼굴노 빙글 빙글 웃고 서잇다。

나는 너머도 반가워서 손

벙을 치고 표君 아프로 달겨드며

『너…너 이거 웬일이냐』

어텃하여 말로로 웬치면서 올라 여기도 봄이와다이 놀로바람에 실된왓구나 속으로그러것을 생각하엿다。

『그래그동안 잘잇섯니?』

『나야뭘 잘잇섯지만…』

말을맺지안코 표君은 몰끄러이 感慨無量하듯이 내얼굴을 마주보며

『너이때용하게 살엇구나』

내딴엔 어디조용한 茶人집으로나가서 懷舊之談이나 하려든 판인데 이놈 十年만에만나서 하는 첫人事가 볼쑥 이것이냐고 나는 깔깔우스면

『그럼 살지안쿠…나 죽지안허서 내심평안되니?』

뵈지안흔 友情이 반가워대구를 하니까 紐前히고게를 갸웃둥거리고 興奮하다

듯시

『거 참 용허게살엇다』

고 무슨 奇蹟이나 바라보는양인데 그럴수록 나는자꾸 바가워 멈춰 표君의 짤을 끼고 것기 시작햇다。

『아니 대체、내가 살어잇는게 뭐 그리 이상허냐?』

표君은 그것에는 대답안코、

『너 지금 설혼…몇이냐?』

『둘。』

『용허쥐 살엇다……하하하…그래 내생각엔 꼭기껏 살어야 설혼 넘기진 몯헐줄 알엇는데……거 참 용타』

하고 如前히 숭치스럽게 感慨를 마지안는다。나는고만 기가 막혀서、

『홍일 놈、악담술 작작해라。그래두 설마 너버덤야 먼접 죽겟니、하하한』

지나가던 사람이 발을멈추도록 큰 소리를 내여 웃고 우리들은 진창을 껑충 뛰어넘엇다。

『너 대체 어디서 오는거냐?』

『金剛山서 왓다』

『金剛山은 왜?』

『몸 맛지 갓섯지……그對答치범이구나、하고나는 문득거름을멈추고 표君의얼맷슬때 모습이그대로 남어잇는그리운얼굴을 다시한번凝視하며 자네얼굴에도 주름살이……버쩍그렷네그려……그러말을입박게내이러다 꿀꺽참 고마움속으로 삼켜 표君이 十年동안겪어온 길을 헤아려보고 더듬어보앗다.

변해진가지 몰 오직고기엇서도몰은 틈틈이시고진으로양이다。

"휴-맨•패로트"

崔載瑞

『휴-맨、패롯트』(人間鸚鵡)는 巴里居住 英國批評家의 異彩인 『벨-씨』의 評論集의 標題이다。藝術精神을 버리고 單純한 『말성이』로 墮落하여서잇는 現代詩人의 一群을 잘表示하는 말로서 여기서 잠간빌리기로한다。

詩가 言語에依한 模倣이라는것은 『아리스토레레스』以來 詩學의根幹을 이루워온 中心觀念이다。그런데사람의言語를 잘模倣해서 飜譯하는 動物이잇다。그것은 鸚鵡다。그러면 詩人과 鸚鵡를 區別하는것은 무엇이냐? 藝術精神이다。鸚鵡는 사람의말을 잘흉내내되 그것은 다만 흉내에끄치다。

그러나 詩人의模倣은 模做의 創造的模倣이다。二더키때문에 詩人이 藝術的創造心을 일는다면 그는 鸚鵡와同列에 서게된다。『휴-맨패로트』가 생겨나는所以다。

우리詩壇에서도 한때 言語遊戲의 學者들이 藝術的이라 다 한 意味도업는言語의羅列이 하염는것이다。아모런 藝術的意味도업는言語의羅列이다 만 그말재주로만해서 讀揚된다면 그것은 鸚鵡새들기 르는 心理와 다를배가 업스리라。

우리는 虛妄된 言語遊戲를 橫行한때가 잇엇다。말이 가난한우리詩壇으로전 當然한일이기도 하엿다。詩는 아무리케되엇을 망정 다만 잘하엿스면 그것이 最高級의詩도서 버젓이 行勢

에서 다시詩精神으로 도라올時期에 이르럿다、나는지금 여기서 詩精神이란 무엇이나 하는것을 캘 생각은업다。다만 詩精神은 기프感動에서만 誕生되고 또기프感動을通하여서만 傳達또는 把握할수잇다는것을말하다。따라서 기프感動이업는사람들새에는 詩를 줄수도 바들수도 업는것이다。다만 表面에서 떠오르는 話이잇을 뿐이다。

이點에잇서서 나는젊은詩人들 몃사람속에서 참된詩精神의 萌芽를 보고 滿足을느긴다。表現된感情이 아직未熟하다든가 그러케 高貴하진 못하다든가 또는 不健康하다는것은 그리 問題될 것이업다。다만 젊은詩人들이 『휴-맨、패로트』에 嫌惡를느끼고 未熟하나마 自己自身의感動을 가지고 詩를 노래하고 십다는 意欲을 보인것만으로서 나는滿足하라한다。

젊은詩人은 詩壇을 關心할必要가 업다。그는 애써서 詩壇人과 할必要가업다。그리고 自己의感情을 부끄러워할必要가업다。다만 그感情을 깁게하고 解體하면 그만이다。그것이 詩的 旣成形式에 맛는 안맛는 介意할必要가 어데잇느냐? 우리는 젊은 人에게서 巧妙한言語裝飾을 要求하지안는다。다만 우리의 悲哀와 歡喜와 期待와 憂愁와 悔恨이 모든不純한 挾雜物에서 遊離되어 眞珠와가치 빗나는것을 보려고할뿐이다。言語는 裝飾하면 死滅한다。다만 眞實性에依해서만 生命을 維持한다。

從軍을禁止

蘇聯이外人記者

【莫斯科同盟特電】最近情報에依하면 蘇聯政府는 外國人의蘇聯內外人記者從軍을 許可하지안케되어다 蘇芬戰의 初期에는 蘇聯의 新聞記者 國家로「모스칸」駐在外國特派員이 戰線 하고잇섯는데 最近은 이것도 못하게되엿다 이結果最近에는 蘇聯側의戰況「뉴-스」는蘇聯最高司令部의 매우서로不寫發表

山高帽에防空壕地圖

【倫敦特派同盟通信】 倫敦市民의 英國兵隊에 銃劍을 매우고 잇는 英國人이만드러낸 「에피소-드」의 어떤英國人은 平素의주머니 잇슬때마다 어느곳에 防空壕가잇는지 알수업스면 곤란하리라하고 山高帽안에다 防空壕의所在를明示한地圖를 그려서 이것만쓰고잇스면 언제空襲이잇서도安心할수잇다고 말의양양하다

가 솜에도밀정 … 一部의階級이 … 하고 … 一部의 … 되고잇다

新刊紹介

▲少年 三月號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 朝鮮日報社出版部 振替京城五八七六番 定價十錢 送料一錢

▲女性 三月號 (內容) 戀愛結婚을말하는座談會 結婚과衛生 美貌의사랑 芬蘭의自然과文化와女性 朝鮮女子敎育史=柳子厚 小說本家庭圖桑成功秘訣 小說愛人 목도리 젊은夫婦等 其他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 朝鮮日報社出版部 振替京城五八七八番 定價二十錢 送料二錢

▲朝光 三月號 (內容)時事=府島會談의成果 米內內閣의對米蘇外交外二篇 東洋文化는어데로 現代新聞動向 巴里의追憶 郵便物 改增의論=金剛漢 朝鮮古書集錄略放(和漢書에나타난) 記者生活十年記 (大事件을中心으로하야)=李圭漢 내地方現地報(平壤、開城、奉天) 滿洲映畵界의現狀 彫刻生活二十年記=金復鎭 全鮮男女專門大學今春卒業生名簿 小說=이를업는사나이 外數篇等其他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 朝鮮日報出版部 振替京城五八七八番 定價四十錢 送料本社負擔

▲金融組合 一月號 發行所 京城府竹添町一丁目七五 朝鮮金融組合聯合會 振替京城三〇〇九番定價二十錢

▲新人間 一月號 發行所京城府慶雲町八八 新人間社 振替京城一一八〇番定價十錢

▲新世紀 (?) 一月號 發行所 京城府外孝仁面(?) 新世紀社 振替京城一六五九四番 定價二十錢

▲酒の朝鮮 一月號 發行所 京城府西大門 朝鮮總督府財務局稅務課分室內 朝鮮酒造組合中央會 振替京城一八二九一番 定價五十錢

▲朝鮮鐵道協會誌 一月號 發行所 京城府古市町一四ノ一三 朝鮮鐵道協會 振替京城一一〇三八番 定價五十錢

緊急廣告

○四冊以上は代金引替大歡迎ハガキ一枚でスグ送本。

見逃す勿れ 御買時の絶好チャンス

新本 定價原價無視 思ひ切った 四十錢均一 ハガキ一枚でスグ送本

三千年 御詠歌集 6 / 最新 いろは新辭典 6 / 松井大將傳 12 / 飛行家を志す人々の爲めに 12 / 中等英和辭典 6 / 建國由來と皇室政治 12 / 經濟警察法規集 9 / 忠勇讀本 9 / 美文くずし 三體ペン字 6 / 實用 ペン字入り 手紙辭典 6 / 新しい手紙の書き方 6 / ペン 青年手紙上達帖 9 / 新時代の女子書翰文 6 / 戰地に送る女子慰問手紙文 6 / 出征兵士に送る慰問の手紙 6 / 小學生の慰問文の作り方 6

觀音經新釋講話 12 / 金神詣と溫泉めぐり 6 / 法律百般 相談相手 12 / 植物圖鑑 6 / 滿鐵を語る 12 / 商店繁昌讀本 12 / 將棋の手ほどき 9 / 生きて働らく商業記帳の覺へ方 6 / 日本歷史年表 6 / 日本歷史の知識 6 / 日本地理の知識 6 / 新最 帝國軍歌集 9 / 不老長生秘話 9 / 合理的小賣經營法 6 / 藤村讀本 9 / バイロン詩集 6 / ハイネ詩集 6 / ゲーテ詩集 6 / 短歌の作り方 6 / 俳句の作り方 6 / 經濟肥料の作り方 9 / 實用肥料の施し方 9 / 蔬菜促成栽培法 9 / 甘藷作論及栽培法 9 / 趣味の養鷄法 9 / 農村發展の基礎 9 / 青少年就職の指導 9 / 受驗必携の秘訣 6 / 苦學上京案內 6 / 中學百科寶典 9 / 少年航空兵受驗案內 6 / 海軍志願受驗讀本 6 / 記憶力增進法 6 / 國木田獨步の小說 9 / 現代冠句大觀 12 / 演藝慰問隊 9 / 寫眞術の基礎 9 / 新聞記者を志す人々の爲に 12 / 美術家を志す人々の爲めに 12 / 探偵小說 恐怖街 9 / 理想の家庭 6 / 老子新釋 9 / 家計簿 9 / 藥用植物圖解 9 / 人一代の運勢大鑑 6 / 日常百般 正しい證書の書き方 9 / 名つけ字典 9 / 戀愛と結婚の書 6 / 結婚讀本 6 / 秘密百科寶典 6 / 法律の知識 6 / 國民としての常識 6 / もの知り辭典 6 / 陸軍の知識 6 / 入營の心得 6 / 神通催眠術皆傳 6 / 忍術氣合術の正體 6 / 護身術上達法 6 / 呪文まじない秘法 6 / 上達種意 6 / 夢判斷 6

算術の解き方考へ方 9 / 算術の基礎知識 9 / 井上英語獨習 6 / 珠算獨習講習 9 / 最新珠算の學び方 6 / 英語講義錄 9 / 英語の近道 9 / ABCより會話迄 6 / 獨逸語入門 9 / 社交と挨拶の仕方 9 / 五分間演說集 6 / 陸軍を志す人々の爲に 12 / 海軍を志す人々の爲に 12 / 現代雄辯十講 12 / 皇民の書 9 / 見て來た滿鮮 10 / 漢法藥教本 9 / 立身より成功への近道 6

大谷の探偵 一萬圓物語 10 / 金脈大功記 10 / 岡辰大福帖 10 / 儲けた人々 10 / 貨殖百物語 10 / 宣傳時代相 10 / 黃金街を行く 10 / 日本海海戰 9 / 征空一萬五千粁 6 / 北支より中支へ 6 / 行政官を志す人々の爲めに 12 / 文學名著集 9 / 漢文入門 6 / 一休と曾呂利 6 / かなの解釋辭典 6 / 支那語獨習 6 / 新聞を讀む人の知識 6 / 聖戰絶唱詩選 9 / 日滿支會話入門 6 / 經濟學の知識 6 / 世界の格言と警句 6 / 宇宙の秘密 6 / 音樂の知識 9 / 新らしき年中行事 6 / 自動車操縱法 9 / 自然化學の知識 6 / 日常科學の知識 6 / 化學萬能の世界 6 / 化學工業品の作り方 6 / 自修化學精解 9 / 劍舞と詩吟 6 / 寫眞の理論と實際 9 / 寫眞の撮り方 9 / 略畫のかき方 9 / 肺病肋膜名灸秘傳 9 / 初步の電氣學 9 / 警察官を志す人々の爲めに 12 / 軍人手紙文 6 / 日本童話集 12 / 茶目の日記 12 / 偉人の修養 6 / 女大學 6 / 軍事法規解說 9 / 現代文學の知識 6 / 青年訓練教本 9 / 相撲の手ほどき 6 / 英語重要熟語と成句の研究 10 / 英作文のこなし方 6 / かくし藝全書 6 / 最新流行歌集 6 / 浮世繪名作集 6 / 裏の裏を公開 之れが世間だ 9 / 海と兵隊 9 / 陸と兵隊 9 / 音樂家を志す人々の爲めに 9 / 競馬の手帖 9 / 青年愛吟詩集 6 / ソ聯は極東を狙ふ 9 / 店員讀本 9 / 支那戰局地圖 0 / 手品種明し集 6

無代進呈 ●御希望を深謝し ●御注文十冊毎に ●御十冊增す毎に 別に一冊宛進呈す

〇短期間の大特賣!!今スグ御申込みをこふ。

東京・杉並區・東田町通一ノ二十四 共同出版協會特賣部 振替東京一九〇一九番

●(御注文)御申込の際……必ず新聞紙名……の御書添へを願ひます●

感冒・ぜんそくの 咳に

せき

冬의家庭에……

咳嗽、喘息은顯著히肺와心臟을害하게하므로初期의加療가肝要한데痲痺性이强한鎭咳藥은中毒性을隨伴키쉬워서 매우危險합니다。多의家庭에는如斯한憂慮가조금도업서서老人小兒에도安全優秀한『ベルマン』을 常備해주십시요

세가지特色

기침이멋고 痰을업세며 發作을緩和心臟을護하며 中毒性이업고 安全奏効

發賣元 東京 大阪 丹平商會

V—26

鎭咳祛痰의 藥効를자랑

ベルマン은 一般鎭咳藥과달라、中毒性이업고 氣分조케痰을업새며 괴로운咳嗽發作을 鎭靜하고 咽喉를부드럽게해서 呼吸을便케하는理想的新劑로서또한 心臟保護作用잇는故로 一般痰咳는勿論、特히 心臟衰弱할 念慮가만흔 執拗한老人小兒의 기침、천식、百日咳等에도好適한良劑입니다

主効

감기기침、천식、百日咳、喉頭가다루 氣管支가다루、목쉰데 肺結核기침、喀痰

價格 五十錠 一圓二十錢 試用 三十錢 全國藥店에有함

ベルマン

베루만

通貨膨脹과 發券制度改正

國民經濟生活 이떠케할書籍까 ⑦

最近特히顯著해진 日銀兌換券의 飛躍的膨脹傾向은 國民生活上으로부터보더래도 重大한關心事로되엇다. 그러나 一方에잇서서 國家財政의膨脹은 運命的인以上 通貨膨脹은 到底히 抑制한다는것은 不可能한일이다. 따라서 通貨의 信用維持, 다시말하면 惡性인 膨脹의 危險을 어떠케해서 回避하느냐하는 것이 熱心히 考究되지안어서는 안될것이다. 十二日의 衆議院豫算總會의 論戰에 …

平均의 發行高를보면 事變第一年인昭和十二年은 十五億三千五百萬圓 … 十三年은 十九億一千九百萬圓 … 十四年은 二十二億 …

保證 準備의 限度擴張에 依하여 …

法律 手續은 … 第一의 現狀維持案의 …

京城食糧配給量

每日七分搗米二千石

麥類는六百石씩所要

京城府食糧配給組合調査에依한 京城府의 一日配給量은 七分搗米二千石, 押麥又는 丸麥六百石(米의三割)이 必要한데 그內容은 如左하다

	七分搗 白米	押麥又는丸麥
組合員	一三八〇 石	四一四 石
小賣商	五〇〇	一五〇
團體	一二〇	三六

잇슴으로 今月末부터 朝鮮內에 들어올것이다 粟, 大豆의朝鮮內 配給은 … 隨時로 滿洲國政府에서는 粟大豆의 買收價格을 引上하게될것이다 따라서 粟, 大豆의 朝鮮內輸入은 大體豫定대로될것이다

滿洲雜穀 五萬石買付

立山技師談

食糧輸入을 交涉코자 渡滿中인 立山技師는 十九日 歸任하엿는데 如左히말한다 生米(茶米)栗, 糯栗, 粳栗, 等合計約五萬石의 買付가 完了되어 目下正式으로輸出手續을하고 잇다

百萬石輸入 三月末까지

春窮期를압두고 滿洲雜穀, 穀의受入數量은 約四十萬石인데 對하여 滿洲國과의 契約에依한 新穀의 入手는 아직十萬石程度에不過한데 今回滿洲國의統制强化와 收買價格의引上에依한 今後의出廻急激增加期待로 中央配給組合에서는 三月까지에는 어떠케해서든지 契約量百萬石確保에 邁進할方針이다

三井物産次席談

滿洲國에서는 十七日附로써 雜穀收買價格의引上을 斷行하게되엇는데 今後의出廻는 去益順調하게될것이다 但여기서 强調하고싶은것은 組合으로서 總督府의 刻下의食糧對策에 順應하여 誠意를가지고 對하고 잇는데 此間利益等은 絕對로度外視하고 中央組合은 마치總督府의出張所와가튼것으로 三井으로서 多年雜穀을取扱하여온關係上 單只그經驗에基한 勞力을總督府에提供하고잇는데 不過하다 一部에는三井이 獨占的으로 利益을보고잇다고 誤解하고잇는지도 모르나 朝鮮에잇서서의 未曾有의食糧受難時代에 遭遇하여 良心的으로도 그러한일을 할수는업다

七米穀市場開設認可

【東京電話同盟】農林商工兩省에서는 前부터 日本米穀會社에서 認可申請中이던 岡山, 新潟, 長岡, 熊本, 佐賀, 富山, 高岡의 七米穀市場設立을 認可할터 十九日官報로써 告示하엿다

銀行預金減

貸出또新記錄

全朝鮮銀行一月末現在

全朝鮮銀行一月末 現在預金貸出高는 預金總計八億五千五百二十八萬五千圓, 貸出總計十五億三千五百八十二萬五千圓으로서 이것을 前月末에比하면 預金에잇서서 一千二百五十八萬九千圓이 減少되어 昨年七月以來 처음되는 減縮이엇다 貸出에잇서서는 一千三百二十八萬五千圓의增加로서 依然히 新記錄을거듭하고잇는데 其內容을보면 如左하다

(單位千圓 △印은減)

◇預金

定期	一三六、八四	六二五
當座	一六九、三三五	△一五、三三三
特當	一三三、六八六	△一六、一六六
通知	一六、三六九	一二六
其他	一四〇、一〇八	一〇、八九九
合計	八五九、六〇五	△一二、八九九

◇貸出

證書	一四一、四四四	二八一
手形	△八四、二一七	△八八三
當座	四六、九七	△一二、八〇二

割手	九六、七三二	△六、四四三
荷爲替	三八、五三五	△四
其他	四四一、七四九	一、二五四

都市經營에서 咸興住宅經營

朝鮮都市經營會社에서는 咸興의 都市計劃에 參하여 區劃整理가 今年十月로써 完成되기를 기다려 同地에서 大規模의住宅經營에 進出키로되엇는데 右住宅敷地는 約二十萬坪 新興都市咸興의 住宅難이 顯著히 緩和되리라한다

預貸增加

京城組銀現況

二月十五日現在 京城組合銀行預金貸出高는 預金은 三億八千五百七十二萬八千圓으로 一月末日現在에 比하여 八百七十一萬三千圓 貸出은 五億九千八百一萬七千圓으로 一月末日 現在에比하여 一億七百九十八萬八千圓의 各其增加이엇다 內容은 如左하다

(單位千圓 △印은減)

證券所持增加

一月十五日現在 京城組合銀行의 有價證券手持高는 六億三千五百十五萬四千圓으로 一月末日現在에比하여 一千三百二十六萬四千圓의 各其增加이다

信託減少

朝鮮信託本社信託勘定은 一月十五日現在 如左하다 (單位圓)

鑛業朝鮮의憂鬱

未處理五萬五千件

一月中鑛業權申請은激減

鑛山局鑛山課調査=一月中의 鑛業權申請件數는 一千二百五十三件으로써 前年同期에比하여 百六十九件의 減少를 示하엿다 그리고 未處理件數는 五萬五千件에 達하여 依然히 減少되지안코잇서 産金朝鮮의 憂鬱이라고한다

七分搗米는嫌忌

內地서精白米化

穀物協會抗議打電

最近內地에서는 七分搗를嫌忌하고 漸次精白米化하는 傾向이 잇다 朝鮮이未曾有의 旱害에도 不拘코 內地에供給한 二十萬石도 七分搗인때문에 嫌忌되는 事實이 잇슴에鑑하여 朝鮮穀物協會는 十九日拓務, 農林, 兩大臣에게對하여 如左한 電報를치고 注意를 促한바잇섯다

近時內地에서는 國策인七分搗米食勵行에 違反하고 白米食을하는 地方이 잇다하는데 그것은 食糧確保에 重大한支障을 招來할念慮가 잇을 뿐아니라 七分搗勵行에 邁進中인 半島二千萬同胞의 努力도 水泡에 歸할것이니 至急히 實情을 調査한後 勵行하도록하기바란다

京城商議員中支經濟視察團出發

京城商工會議所中支經濟視察團은 會頭田川常次郎, 常議員伊藤淸一, 議員松田淸, 事務局書記于山幸三郎等 四氏가 十九日午後七時京城發로 …

滿洲雜穀

統制强化·價格引上

朝鮮內輸入圓滑?

그래도賣惜하면强制로買收

滿洲國으로부터의 輸入雜穀의 關係에對하여서는 目下中央配給組合에서 積極的活動을繼續코잇는데 旣報와가치 滿洲國當局에서는 從來의國內雜穀統制의不備를補키爲하여 去十日로써 統制의强化를 斷行하고 特産專管公司及 穀物會社의雜穀收買의圓滑을期하엿스나 統制實施强化에도 不拘코 所期의買收의圓滑을期待키어렵다는바 그原因으로서

一、統制의不備

二、豊作으로 農民에게餘裕가잇는것

三、코스트低

의三點에歸着하다 滿洲國에서는 다시 統制를强化한 十日以後의 實績에鑑하여 十七日 大豆斷으로써 雜穀全般에對하여 一圓乃至二圓의大幅値上을단행 中央組合에對하여 入電이잇섯는바 十日의 統制强化의實績과 今回의 大幅値上으로이에 前記의出廻不振의가장 重要한 原因은是正케되엇스므로 當局의收買는 本格的으로 圓滑化케되어朝鮮內에의 輸入도 今後急速히 順調로될것으로 期待되고잇다 그리고當局에서는 이래도農村의 賣惜等이 繼續되면 强制收買도 考慮하고 잇는듯하다

百四十圓으로二割八分 百七十萬二千三百十一圓으로 入分九厘 大邱가二百四十五萬 入百二十三圓으로 一割七分三厘가 各其前年에 比하여 激增되엇다

鰮粕의直賣廢止

有機肥會社에納入

油肥聯에서는 過日의總會에서 有機質肥料會社에 參加를決議하기에 至하엿는데 이로써二月一日以降朝鮮內의有機質肥料販賣機構는 從來의直賣를 廢하고 油肥聯에서 三菱이參加하여 有機肥會社에直接納入하고 다시會社로부터 産業組合關係에는 全聯에 그外 産業團體에 對해서는 三菱에서 配給하기로되엇다

煙草賣渡增加

昨年十一月부터十二月까지 三個月間의 朝鮮內製造煙草의賣渡高는 二千十六萬六千圓 … 年同期間의 賣渡高에比하여 三百七十二萬三千三百十二圓의 增加, 九分五厘의 增加를 示하엿다 各地方局別로보면 京城이 五百六十八萬四千四百十六圓으로 三百四十四萬八千四百二十圓이다 이것을 前年同期에 比하여 二圓九分의增加, 平壤이 …

圓元의等價維持

日支兩國의經濟關係를調整

藏相, 當局의方針言明

【東京電話同盟】北支의聯銀券, 中支의華興券及軍票와 法幣와의 關係調整에關하여 櫻內藏相은 十七日衆議院豫算第三分科會에서 中島彌團次氏(民政)의質問에 對答하여 다음가치 當局方針을 言明하엿다

櫻內藏相 現在의 聯銀券과의 圓元과의 關係를 그대로 聯銀券의 價値를 保持하도록할것이 明白하다 따라서 日本으로서는 圓元과의 等價維持하여 日支兩國의 經濟關係를 調整할 方針이다 勿論이 精神으로서 …

我國의 物資가 北支로 流出하는것을 不得已한데 이것을 防止함은 圓元聯銀券과는 등價關係에依하지안코 다른方法으로 管理統制할方針이다 北支에輸出되는 日本의物資는 主로生活必需品及 經濟開發資材에 局限되어잇고 此等資材가나 오는結果는 멀지안허 北支로부터 日本으로向하여 物資가供給케될 模樣이라고 期待를걸고 잇다 現在日本으로서는 聯銀券의信用을 노피는데 協力하여 圓元과等價關係에關하여는 聯銀券의 信用이 相當한程度로 높아질수잇슬때에 考慮될것이다

當籤發行대신

新方法考究

通貨回收策藏相答辯

【東京電話同盟】인플레防止의一方法으로서의 當籤附債券發行案은 大藏省에서도 考究中이라고 電報되엇스나 十九日의 衆議院豫算總會에서 喜多壯一郎氏(民政)의 質問에 對하여 櫻內藏相은 通貨의回收에關해서는 何等의 新方法을 考究中이다 富籤發行에 代할 何等의 方法을考究中인가 如左히 答하여 注目을끌엇다

內藏相은 富籤發行에 대신할 어떠한 人心을 捕捉하는 新規의方法을 目下考究中이다 富籤에對하여는 先般來種々 答辯한바와가치 效果는 잇스나 弊害도 相伴되므로 愼重考究하여야 한다

二十九億圓臺割

日銀券收縮

新次 收縮을보이는 日銀券發行高는 또收縮되어 마침내二十九億圓臺를 割下하엿다 卽十九日에 發表된 發行高를보면 二十八億九千五百五十三萬二千圓으로 前日에比하면 一千五百四萬四千圓의 減少이며 또이것을前週末에比하면 一億七千五百十八萬七千圓의 減少이엇다 따라서 前年同期에比하면 二十四萬六千圓의 增加이엇다

日滿郵便爲替取扱

一月中에잇서서의 日滿郵便爲替의 取扱高는 朝鮮振出, 滿洲國拂渡가 一萬二千三十七件, 六十九萬七千五百六十圓, 滿洲國振出朝鮮拂渡가 七萬一千五百七十件 三百八十八萬五千五百二十一圓으로써 差引三百十八萬四千五百六十一圓이 滿洲國에서 朝鮮으로 流入한셈이며 또이것을 前年同期에比하면 朝鮮振出, 滿洲國拂渡가 八萬五千四百三十九圓 …

(一割四分)滿洲國振出朝鮮拂渡가 三百六萬七千四百八十六圓(十一割三分)의 激增이엇다

京城事務所『大陸』으로 北支經由 中支에向하여 出發하엿는데 一行은上海 蘇州 嘉興 杭州 南京等 中支各要地를 歷訪하고 關東朝鮮의 經濟事情을 徹底的으로 紹介하는同時에左의各事項을 調査하여 來三月四日上海發 長崎, 門司를經由 同七日午後一時四十五分 京城驛着 『아까쯔기』로 歸京할豫定이다

一、朝鮮과의 貿易關係, 一、外國品의輸入狀況, 一、日支間의關稅關係, 一、金融及通貨問題, 一、租界問題, 一、揚子江開放(南京)問題, 一、其他參考事項

十字路

▼…百三億의龐大豫算無修正通過確實.

▼…貨國의 闇取引은戰時財政論議未完成.

▼…元米殺正普通過案조차 업어生할諸問題.

▼…尨大豫算案에 依하여 대로發行.

▼…物價對策에 適合한지 인플레防止가 可能한지 궁금하리 그

▼…滿洲國政府 新穀收買格 大幅引上.

▼…生産者의 實情은 어느點으로보아 內地보다 朝鮮이 더愁慘한 模樣인가.

▼…朝鮮에 輸入이 잘되는데 有効한것은 고마우나 公定價格引上도 流行?

▼…鑛業權申請 未處理件數 五萬五千.

▼…勿論 鑛區不足은 엄는가 人員不足은 모르는바아니나 新興朝鮮의 飛躍을 爲해 좀一考.

株式 一進一退 不變

前場往來

今朝는東新二低인 百三十九圓四 鐘紡一圓一低인 百六十八圓七 鐘新五低인百十圓丁까지 上昇되엇스나 곳反落되어 結局 東新은百四圓十七錢五 鐘新百二十九圓三 鐘新百八錢五 安取十八圓三에 大引

後場不變

後場은 不變인 東新百三十九圓三, 鐘紡百六十九圓二에 寄付後不變모양이엇다

同一圈內從來

英獨의 伊勇奮闘事件으로 英國關係는勿論 獨逸關係가 다시 緊迫을 告하게되고 議會에서의 尨大豫算은 無修正通過가 거의 確定的으로되어 環境으로보면 若干明朗性을 加하게되엇스나 아직市勢는 同一圈內往來를 거듭하여 東新은依然百四十圓附近에서 躊躇하고잇는狀態이다 그러데國際關係에對한 楽觀에因한 主義强化에 依한 景氣의深化로 民衆資金分로 來脫이어서 民衆待하고잇스나 民가 업는場面이므로 依然히 一波瀾이 潛在된 貌樣이다

今日의市勢 十九日

(一圓四分)滿洲國振出朝鮮拂渡가 …

株 …東新은 依然百四十圓臺에

圈內를 出入하고잇고 其他도 모두同一圈內를 往來▲百三圓의 尨大豫算은 無修正通過가 確定的으로 되어 『인플레』氣分에는 無變化▲그러나 重點主義의 實施로 『인플레』의惡澤도 偏傾이 深化될것이니 株價도 다시 『傍觀的』勢를 保하게될 것이다 그러나 右局의 展開를보이라면 相當의 時日을 要할것이다

延取 依然不成 休商

前場不成

今朝도 賣買全無이엇다

後場同調

後場도 傍觀되어 賣買全無이엇다

海外經濟 十七日

銀行券 十七日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現物堅調

現物은 滿鮮主力의 往來로 積極的行動은 보이지안흐나 一般으로 堅調不失이엇고 例의高周波新株는 一圓五高인五十五圓五가량을 올러 好勢이엇다

今日現株市勢 (正午調)

◇朝鮮內株式

鮮銀新	二五·五〇	殖銀	三八·〇〇
朝鐵	三九·五〇	京春鐵	三六·〇〇
金剛電	八六·〇〇	同 四新	二三·五〇
京城電	七五·〇〇	同	三三·五〇
京電新	六五·五〇	漢水電	三〇·〇〇
南電	七五·五〇	西電	一七·五〇
國産自	三三·〇〇	中央無盡	一七·五〇
無煙炭	三六·五〇	製鍊	三五·五〇
金鑛新	三三·〇〇	小林新	三三·〇〇
막네新	四三·〇〇	三陟開	四〇·〇〇
朝石	四三·〇〇	朝紡新	六〇·〇〇
東拓新	三二·五〇	同新	四二·〇〇

◇內地株式

◇滿支株式

今日財界 十九日

◆米穀(京城)(公定價)

正租(정조)

玄米白米(七分搗)

◆雜穀(京城)(公定價)

京城物價 十九日

金利手形交換

京城手形交換高

大阪手形交換高

東京手形交換高

對外爲替

株式

◆朝取短期◆

◆東新取組◆

◆大阪短期◆

◆大阪長期◆

◆東京短期◆

◆東京現株◆

棉花

綿布

生糸

綿油粕·麥粉

◆日本東部市況◆

證券 延米 京城府黃金町 玉 鄭運得取引店 電話②2601番

重石·水鉛 金銀買入 三昌鑛業所 京城南大門通二ノ十一 (朝鮮信託前) 電話本局三〇二五番

三國志

韓雲齊 熊超畫

呂布의最後 (五)

먹을것을 구하니 이르는 곳마다 유예수가 와다는말을 듯고 다투어 먹을것을 가저오는지라 하루는 한집에이르러 유숙할새 그집 절문사람이나와 절하는사람 그의성명을 무르니 사냥하는 유안(劉安)이라 그때에 유안이 유현덕이 왓다는말을 듯고 무엇이든지 사냥하여서 대접하려 하얏스나 마침잡지못한고로 그안해를 죽여서 고기를 대접한대 현덕이 뭇되『이것이 무슨고기뇨』『이리의 고기로소이다』 현덕이 의심하지안코 배부르게 먹엇다 그밤을 쉬이고 새벽에 떠날새 뒷동산에가서 말을 끌러내다가 우연히 부엌을 보니 부인하나가 죽어 너머젓는데 팔뚝의 고기를 베어내지 안헛더라 …

여포가말하되 『내가 현덕으로 더부러 이 두귀우나 어찌참아 그처자를 해치리오』 하고 미축으로 하여금 현덕의 가족을 이끌고 서주에가서 편안히있게하고 여포는 스스로 군사를 이끌고 산동의 연주경계로 가고 고순과 장요를 머물러 소패를 지키게 하엿다 이때에 손건이도 서관으로 도망하고 만장 두사람도 얼마되지안는 인마를 거두어 가지고 산중으로가서 둔치었다 …